



기획시리즈

최명섭 / 임업연구원

가 침 박 달



학명 : *Exochorda serratifolia*
 영명 : Common Pearlbush
 한명 : 柳櫻
 일명 : やなぎざくら

▲가침박달나무 전경

세계 각국에서 조경수로 개발
 코자 연구되고 있는 수
 종으로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
 은 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
 북 경주시와 충북 청주시 그리고
 경기도, 황해도, 함경남북도등 북
 부지방의 표고 100~400m 사이의
 산기슭과 계곡에 자생하며 지리
 적으로는 만주에 분포한다. 세계

적으로 3종이 아시아의 중부 및
 동부에 자란다.

영명인 Common Pearlbush는
 열매의 형태가 예쁜 진주를 달고
 있는 키가 작은 나무라는 뜻으로
 장미과 식물내에서 아주 특별한
 형태의 열매를 달고있는 나무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빛나무
 와 같이 전정에 약하여 수형조절

은 힘든 편이며 빠죽 나온 맹아지
 나 잘라 주는것이 좋다. 유사종으
 로는 잎의 뒷면에 털이 많은것을
 털가침박달 (var. *oligantha* Nakai)
 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만 자생하는 특산종이다.

1. 생태적 특성

표고 100~400m사이의 산기슭

과 계곡에 자생하는 낙엽활엽 작은키나무로 높이는 1~5m까지 자란다. 음지나 양지 가리지 않고 잘 자라고 추위에 강하여 우리나라의 어느곳이나 월동이 되며 건조한 토양에서는 견디지 못하나 척박한 토양에서는 잘 견딘다.

염해에는 보통으로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피해가 없으나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은 약하다. 토심이 깊고 토양수분이 적당하며 부식함량이 많은 사질양토에서 많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2 형태적 특성

수피는 회갈색이며 1년생 가지는 붉은 빛이 도는 갈색이고 털이 없으며 흰색 피목이 가지에 흩어져 있다. 잎은 어긋나며 길이 5~9cm의 타원형으로 상반부에 톱니가 있으며 뒷면은 회백색이고 양면에 털이 없다. 꽃은 양성으로 암수가 한그루에 피며 가지끝에 피는 총상화서(總狀花序)에 3~6개씩 달리며 꽃의 지름은 4cm이고 5월에 백색꽃이 핀다. 꽃잎은 5개이고 끝이 오목하다. 열매는 8~9월에 익으며 삭과(朔果) 뒷면이 터지면서 종자가 나오고 종자에는 날개가 있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5월의 신록속에 은제춧대와 같이 우뚝서서 피는 새하얀 꽃은 우아하고 화려하며 붉은 구슬같은 꽃봉오리가 터지면서 은은한 향



▲가침박달나무 근경



▲가침박달나무 열매

기를 발산하여 5월의 꽃으로는 최고의 품위를 나타낸다. 8~9월에 맺히는 열매는 어떤 나무에서도 볼 수 없는 진기한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정정원에서 햇빛이 잘드는 남향의 토심깊고 부식함량이 많은 토양에 단목으로 식재할때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공원이나 학교등 비교적 넓은 면적에 식재코자할 때는 여러본씩 군식으로 식재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맹아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정을 하여 수형을 조절하기 보다는 도장지나 제거해 주는 것이 좋고 이식시키는 잎이 피기전인 3월하순쯤이 적당하다.

비료는 화학비료보다 퇴비나 유박등을 완전히 부숙시켜 시비하는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과 미국등에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식재를 하였으며 육종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품종 개발에 열심이다.

4 번식법

번식은 종자나 꺾꽂이, 접목, 휘묻이등 모든방법이 가능하며 대량번식시는 종자번식이 좋으며 우량개체 번식시는 접목이나 꺾꽂이가 적당하다.

가. 씨앗번식

9월에 익는 열매를 채취하여 그늘에서 말려두면 배와 등이 5개로 갈라지는데 10개 정도의 종자가 들어있으며 그중 2~3개 정도가 충실한 편이다. 채취된 종자를 서늘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파종 1개월전에는 노천매장 하였다가 파종하면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

나. 꺾꽂이

잎이 피기전 춘기에 꺾꽂이 하는것보다 7월중 그해에 자란 새가지를 꺾꽂이하면 발근율이 훨씬 높다.

5 그 밖의 용도

정원의 관상수나 조경수로 가치가 높으며 또한 개화기간이 20일 이상으로 길고 꽃봉오리와 꽃송이가 아름다우며 향기가 높아 꽃꽂이 소재로 개발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